

# 폐교 방치 강진 성화대,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탈바꿈

### 애물단지 전락 7만평 부지·8개동 건물 개발 청사진 용역 마무리 330억 투입 내년 착공...창업 기업 육성·유헤이션 공간 등 구축

폐교된 지 10년이 넘는 강진 성화대학교가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 강진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옛 성화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폐교한 성화대는 23만1405㎡(7만평) 터에 8개 동으로 구성됐다.

10년 넘게 건물이 활용되지 못하면서 인근 인구 이탈과 상권 침체를 부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9월 지방소멸 극복 방안의 하나로, 폐교된 옛 성화대 재산을 모두 사들였다.

이후 옛 성화대를 청년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폐교된 22개 대학 가운데 부지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수립된 건 강진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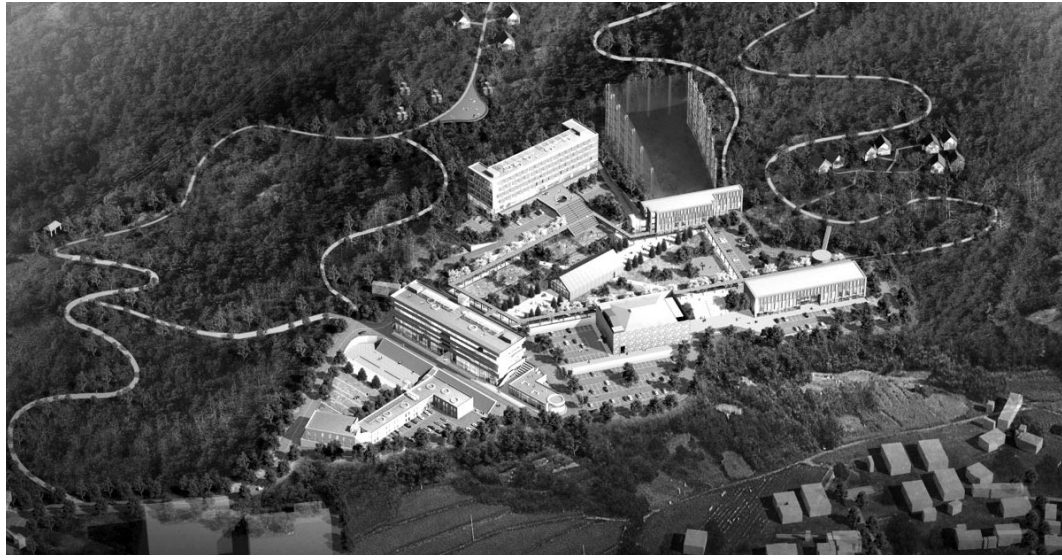
강진군은 지난해 전남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며 확보한 사업비 330억

원을 성화대 새 단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성화대 활성화 기본계획은 모두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강진만의 차별화된 문화와 4차산업 기술을 융합한 교육, 문화, 관광산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추진해 기업 거점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다.

올해 말까지는 군관리계획시설(학교) 해지 입안과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 강진군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디지털 혁신 체험관 구축·운영을 위해 앵커(선도)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 측은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운송 수단, 도심형 항공교통(UAM),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개발, 실감형 콘텐츠 기반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업들이 입주 의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들이 들어오면 4차산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



강진군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옛 성화대학교를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웠다. 성화대 활성화 사업 조감도. <강진군 제공>

로 창업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유헤이션'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기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마

수 있는 산림 휴양 부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성화대 세립관과 골프연습장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골프 특화 유스 호텔'을 개발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그동안 ㈜현대산업개발, ㈜오르비스포텍, 한국유스호텔 연맹 등 다수 기업·기관과 협의하며 성화대 개발 방안을 마련해왔다.

옛 성화대 잔여 부지를 대상으로는 내년 '지역활력 타운 공모사업'에 도전해 산업단지 종사자와 청년 유입을 꾀할 예정이다. 글로벌대학에 예비 지정된 국립목포대와 지역 특성화 스타트업 벤처타운을 조성해 청년 창업가 정주 공간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강진군 측은 오는 2026년에 강진-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민간 투자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옛 성화대 활성화 계획의 최종 목표는 성화대가 폐교되기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이라며 "폐교된 대학을 지역 활성화의 중심으로 탈바꿈시켜서 강진군이 전남 남부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강진 마랑놀토수산물시장 주말마다 관광객 '복적복적'

### 10월까지 마랑향 중방파제서 열려 수산물 특별경매·체험행사 인기

강진의 정정 미향 마랑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이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놀토수산물시장은 마랑향 중방파제에서 10월 말까지 개최된다.

3최(最·최고 신선, 최고 품질, 최고 저렴)와 함께 3무(無·수입, 비브리오, 바가지 無)의 운영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수산물장은 횡집 등 음식점과 수산물 코너, 건어물 판매장, 길거리 음식점을 비롯해 할머니 장터 등이 운영된다.

매일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는 각종 수산물 특별 경매가 이루어져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

마랑 전망대카페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지난 15일에는 전망대 음악회를 비롯한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과 컬러데이를 함께 진행했다.

녹색 계열의 옷이나 지갑, 양말 등을 소지할 경우 무료로 음료를 지급했다.

7월에는 여름방학에 맞춰 강진 3대 물놀이장 개

장과 함께 놀토수산물시장에도 어린이 육상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삼북더위를 날려줄 각종 수산물을 활용한 북반 이벤트도 한다.

놀토수산물시장은 2015년 개장 이후 2023년까지 105만 명이상이 다녀가 총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개장 이후 토요일 수협 위판장과 마랑향 주변 횡집 등 상가들은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며 "마랑향에서 10회에 걸쳐 토, 일예 열리는 피싱 마스터스 낚시대회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윤병태(가운데) 나주시장과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이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평가대회' 전국 우수지자체 선정을 자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나주시 보건의료계획 우수 지자체 선정

### 전국 지자체 평가...장관상 수상

나주시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계획 전국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나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평가대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9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나주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포괄성, 전략, 과제의 연계, 목표설정 타당성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살기좋은 행복나주, 모두가 건강한 나주'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중심 감염병 대응·보건 의료역량 강화', '시민 중심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지역 내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보건의료계획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또 이러한 전략에 맞춰 감염병 예방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심

뇌물관질환 예방관리, 스마트기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임신 전·후부터 양육까지 모자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등 18개 세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 대응을 위해 신설한 '감염병관리과'의 성과가 돋보였다. 2023년도 기준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 신고 준수율의 경우 98.7%를 기록해 목표한 98.2%를 상회 달성했다.

이 중 법정전염병인 '결핵' 관리의 경우 취약계층 검진실적 100%,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율 100%라는 완벽한 실적을 이뤄냈다.

각 의료기관에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 감염병 89종 가운데 제1급 감염병 17종에 대해 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제2급·3급 감염병 49종은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재난·의료 위기 대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기대수명을 높이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사계절 텃밭' 드려요

### 20만원 이상 9㎡ 규모 제공 담양군 이색 답례품 '눈길'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텃밭 분양권'을 제공키로 해 이색 아이디어로 눈길을 끈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20만원 이상 기부하면 1구간당 9㎡(3평) 규모의 텃밭을 제공하는 '고향사랑 사계절 텃밭'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 첫 답례품으로 선보인 고향사랑 사계절 텃밭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 한개 동에 46구간을 만들어 1구간당 2칸씩 구성돼 있다.

기부자들이 편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과 더불어 편하게 작물에 물을 줄 수 있는 설비도 갖췄다.

최근엔 경작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채소 재배법과 텃밭 운영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서로 재배한 작물들을 수확한 뒤 나누는 뜻 깊은 시간도 함께 했다.

하반기부터는 텃밭 운영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10개월로 늘리고, 텃밭 경작자들이 함께 재



20만원 이상 기부하면 제공하는 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 내 텃밭. 배법과 수확물을 공유하는 '팜파티'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즐거운 텃밭 생활로 즐거운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장성군, 기업 20곳 초청 농식품 수출 촉진 간담회

### 의견 나누고 지원 방안 논의

장성군은 최근 농식품 수출 유망기업 20곳을 초청해 수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바라는 장성지역 유망 식품 가공업체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수출 애로사항을 나누고, 수출 확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성군은 해외시장 현황과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 세계가 한국의 '케이(K) 푸드'에 열광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품질 관



장성군이 농식품 가공업체들과 '농식품 수출 유망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리와 상품 개발에 힘쓰면 장성 먹거리의 해외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장성군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흥 물축제, 태국 송크란 축제 교류 협력

### 전남도·태국관광청 등과 협약

장흥군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가 업무협약을 맺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에서 '전남도-태국정부관광청-장흥군' 3자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크란 축제는 매년 4월 13일-15일 전후로 열리는 태국 최대 규모의 축제로 세계 10대 축제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는 모두 '물'을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다.

이 같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두 축제는 그동안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다.

장흥군은 전남도가 추진한 지역 축제 글로벌화 추진 목표에 발맞춰 태국정부관광청과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축제 교류의 첫 무대는 오는 7월 27일 개막하는 제17회 전남진 장흥 물축제 개막식이 될 전망이다.

태국 송크란 축제 예술팀은 장흥 물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초청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양측의 우호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방한 관광상품 개발,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전에도 나설 예정이다.

물축제의 해외 인지도를 올려 물축제를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에서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 물축제는 태국 송크란 축제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펼쳐지는 전남진 장흥 물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